

대구주보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2014. 10. 19. (가해) 제1913호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 캠퍼스 성당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마태 28,16-20 참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교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 몇몇이 할 일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회가 좋은 나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명에 순종하고자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거들어드리도록 허락받은 것 자체가 사람의 분수를 넘는 영광입니다.

제1독서 이사 2,1-5 **제2독서** 로마 10,9-18 **복음** 마태 28,16-20

입당송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화답송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한영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 모두가 잘 받아들여 행하여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가톨릭교회의 세력을 확장시키라는 의미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묵상해보면, 이 말씀은 교회의 외적인 팽창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을 아주 투명하고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모든 민족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차적인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제자들이 정작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말씀 모두를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양(量)’의 문제보다는 ‘질(質)’의 문제가 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지난여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한국사회 전체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또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

게 하였습니다. 그분은 한국사람 전체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졌고, 그분의 향기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베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인위적인 쇼맨십도, 더 큰 영향력을 펼치기 위한 과장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황님은 그분이 지으신 책의 제목처럼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신 당신 자신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황님의 모습 안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화가 보였습니다. 그분에게서 배어나오는 기쁨과 평화의 모습은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그 복음적 기쁨과 평화가 한국국민 전체를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철저히 따라 사시는 교황님 한 분의 모습에 의해 우리 모두도 참다운 행복과 평화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교황님은 하느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당에 다니며 신자로 살아가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교입니다. 하느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품위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인가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교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작은 교황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의 2014년 전교주일 담화문(요약)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루카 10,23)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적이고, 전교 주일은 선교지에 있는 신생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대륙의 신자들이 기도하며 구체적인 연대 활동에 전념하는 탁월한 시기입니다. 제자들은 선포의 사명을 완수하고 기쁨에 가득 차 돌아왔습니다. 그 기쁨은 잊을 수 없는 첫 선교 경험의 으뜸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권한을 두고 기뻐하지 말고 그들이 받은 사랑에 기뻐하라고 당부하셨으며(루카 10,20), 제자들은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였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시며”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깊은 기쁨의 순간은 예수님께서 성부의 아드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루카 10,21).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분의 내적 환희를 드러내는 것이며 ‘선하신 뜻’은 아버지의 인류에 대한 자비로운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느님의 선하심을 두고 예수님께서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성모님의 환희가 이와 비슷하다고 말하였는데(루카 1,46-47), 이 두 경우에서 기쁨은 구원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기쁨의 샘입니다. 이 기쁨을 아드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성령께서 그 기쁨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줍니다.”(『복음의 기쁨』, 1항).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기쁨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와 더불어 개인주의적 불행입니다. 이는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복음의 기쁨』, 2항). 이 때문에 더욱 인류는 그리스도께서 가져다주신 구원의 샘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 더 사로잡히는 사람, 하느님 나라를 위한 열정에 불타는 사람이 되어 복음의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니다”(2코린 9,7). 개인의 금전적 기부는 먼저 주님을 향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이들을 향한 자기 봉헌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하여 물질적 봉헌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류의 복음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화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 복음의 기쁨 속에 잠겨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랑을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신 그 ‘첫 사랑’을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현존을 느낄 때,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과 믿음과 희망과 복음적 사랑을 나눌 때에 기쁨 안에 머물게 됩니다. 교회가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복음화의 모범이신 마리아의 전구로 환대하는 집,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낳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티칸에서
2014년 6월 8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복음의 눈으로 문화 읽기

도시락이 사라졌다

김병주 제노 신부 | 범어본당 보좌



학창시절, 점심시간은 최고의 즐거움이었다. 저마다 용기종기 친구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며 꽃피우는 이야기도 재미있었고 서로 어떤 반찬을 준비해왔는지 궁금해 하고 나누는 것도 소소한 행복이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도시락이 사라졌다. 가지각색의 도시락 통은 사라지고 철제 식판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른 아침, 피곤한 몸으로 도시락을 싸던 어머니의 뒷모습은 사라지고 하얀 마스크를 쓴 이름 모를 아주머니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먹는다는 행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위이다. 식판의 문화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경계 안에서 끝이 난다. 모두가 같은 식판에 같은 음식을 먹고 있으니 굳이 다른 사람의 것을 쳐다볼 이유도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생명의 활동이 자신 안에서 끝나버린다.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신의 활동이

끝나면 여지없이 자리를 떠나버린다. 식판의 행위는 생명의 활동이 자신만으로 족하다고 믿게 한다. 하지만 도시락은 다르다. 도시락은 타인과의 연결성을 지닌다. 자기의 반찬만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 보다 다른 사람의 반찬을 나눔으로서 더 풍요로운 먹거리가 생김을 안다. 도시락의 문화는 타인이 불필요한 존재가 아닌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더욱 다가오게 한다. 삶의 더 큰 기쁨과 행복이 나 혼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것임을 배우게 한다.

오늘날, 편의성과 효율성 앞에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자꾸만 잃어간다. 개인이 더 중요하고 타인의 존재와 필요에 대해서 의문을 품곤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더 풍요롭고 기쁨 삶을 위해서는 나 아닌 누군가와 함께 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이의 반찬이 우리에게 먹는 기쁨을 주듯, 다른 이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한다.

“삶이라는 것은 길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교황 프란치스코)

모두가 1등인 운동회!

가을운동회 날, 초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풀지만 했던 아이가 있습니다. ‘연골무형성증’이라는 지체장애 6급의 병을 앓고 있는 기국이는 또래들보다 작고 통통하다보니 다른 아이들보다 체육 성적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도 꼴찌로 마무리 하겠거니 하며 모두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다섯 명이 출발했습니다. 여전히 마지막 주자로 달리는 기국이, 역시나 이번에도 꼴찌를 면하지는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결승선을 불과 30m를 남겨둔 지점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멈춰서서 기국이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꼴찌로 달려오던 기국이 손을 잡고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항상 꼴찌를 도맡았던 친구를 위해 4명의 친구들이 깜짝 선물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기국이와 친구들은 결승선까

지 다 같이 들어와 공동 1등을 했습니다. 처음 1등을 해 본 기국이는 감격하고 친구들이 고마워서 그만 울

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가족들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모두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모두가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마태 20,16)



금주의 성인

10월 19일	성 르네 구필(선교사, 순교자, 캐나다, 1606~1642년), 성 바로(군인, 순교자, 4세기경) (십자가의) 성 바오로(신부, 설립자, 1694~1775년), 성 베드로(신부, 신비가, 알칸타라, 1499~1562년) 성 아퀴리노(주교, 예브리, 620~695년경), 성 에트비노(수도원장, 킬데어, 6세기경) 성 이사악 조그(선교사, 순교자, 캐나다, 1607~1646년), 성녀 프레데스빈다(수녀, 옥스퍼드, 735년경)
10월 20일	성녀 베르틸라 보스카르딘(수녀, 1888~1922년), 성 아르테미오(사령관, 순교자, 363년) 성녀 이레네(동정 순교자, 포르투갈, 653년경), 성 카프라시오(순교자, 아쟁, 3세기)
10월 21일	성 말코(수도승, 은수자, 4세기경), 성 힐라리온(수도원장, 가자, 291~371년)
10월 22일	성 도나토(주교, 피에줄레, 876년), 성 멜라니오(주교, 루앙, 314년) 성녀 살로메(신약인물, 부인, 1세기경), 성 아베르치오(주교, 히에라폴리스, 200년경) 성 요한 바오로 2세(교황, 1920~2005년)
10월 23일	성 세베리노(주교, 쾰른, 420년경), 성 알루치오(목동, 페쉬아, 1134년) 성 요한(신부, 설교자, 카피스트라노, 1386~1456년), 성 이냐시오(주교, 콘스탄티노플, 799~877년)
10월 24일	성 아레타(순교자, 나그란, 523년), 성 프로클로(총대주교, 교부, 콘스탄티노플, 390~446년) 성 안토니오 마리아 클라렛(대주교, 설립자, 산티아고데쿠바, 1807~1870년) 성 야누아리오(신부, 순교자, 303년), 성 펠릭스(주교, 순교자, 티비우카, 247~303년)
10월 25일	성 가우덴시오(주교, 브레시아, 410년경), 성녀 다리아(순교자, 300년경) 성 크리스찬토(순교자, 300년경), 성 크리스피노(순교자, 수아송, 287년)



■ 가톨릭미술가회 창립 40주년 기념 특별전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0월 7일(화) 오전 11시 대백프라자갤러리에서 열린 「가톨릭미술가회 창립 4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하시어 축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 성모당 봉헌 96주년 기념미사



성모당 봉헌 96주년 기념미사가 10월 13일(월) 오전 11시 성모당에서 교구 총대리 하성호(사도요한) 신부님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대구 종교인 평화회의 평화 음악회



대주교님께서는 10월 10일(금) 오후 7시 교구청 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구 종교인 평화회의 평화 음악회」에 참석하시어 함께한 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0월 20일(월) 10:30 범어성당		10월 21일(화) 14:00 신암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0일(월) 11:00 한티순례자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0월 22일(수) 10:00 죽도성당 10월 22일(수) 14:00 토마스성당
포항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0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0월 22일(수) 10:00 평화성당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10.25(토) 14:00

장소: 예수회 관구본부(서울 마포구)

주제: 예수회원의 정체성: 죄인

이면서 예수의 벗

문의: (010)6483-4008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일일 대피정

일시: 10.20(월) 10:00~17:00

장소: 교육원 대강당(점심제공)

강사: 손우배 신부(예수회)

일정: 대구교남미사, 강의, 성체현시, 강복

문의: (010)5493-1819

성령봉사회 1박 2일 피정

기간: 10.25(토) 14:00~26(일) 12:00

강사: 김성열(레오)우면동성당 치유봉사회

신청: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2박 3일 성령세미나: 11.7(금)~9(일)

최봉도 신부 지도 희망 기도 피정

기간: 11.13(목) 15:00~16(일) 12:00

장소: 의정부 민족화해센터

문의: 전선자, (010)6254-0057

예수마음배움터 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10.31(금) 17:30~11.2(일)

4박 5일: 11.17(월) 14:00~21(금)

8박 9일: 11.24(월) 14:00~12.2(화)

에너지그램: 10.23(목) 15:00~25(토)

문의: (031)946-2337~8

예수성심으로의 초대

기간: 11.22(토) 15:00~23(일) 15:00

대상: 길을 찾는 미혼 여성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신청: (010)2649-2045

교육 | 모집

제3회 가정성화를 위한 성체거동 도보순례

일시: 10.26(일) 10:00

장소: 어농 성지에서~단내 성가정 성지

미사: 단내 성가정 성지 15:00

비고: 점심 무료 제공

신청: (031)633-9531

예수마음기도 5주 과정

일정: 11.8~12.6(매주 토) 10:00~16:00

장소: 바틀로교육관(파동)

문의: 김마리아수녀, (010)2505-9545

제45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설명회

설명회: 11.1(토) 14:00, 남산성당

초.중.고: 1.6~2.18(3.5.6학년)

대.일반: 1.4~2.15(6주 or 장기)

주관: 마 신부님(Rev. Brendan MacHale)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과목: 발성, 가곡, 키보드,

오카리나, 심리상담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문의: (070)4266-0047

서강대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0.27(월)~11.6(목)

전형일: 11.15(토)

모집: 석사 00명 / 석박통합 및 박사 0명

문의: <http://gsot.sogang.ac.kr>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 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성당, 헬스장, 사우나, 물리치료실등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히말라야·랑탕·안나푸르나

일시: 2015.5.4(월) 11박 12일

주최: 한국가톨릭문화원(산행방)

문의: (010)4711-8188

자오나 기숙형태안학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서류전형, 개별면담후 입학결정

대상: 13~18세 학교밖 위기청소년

문의: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02)911-7580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유방·갑상선 전문 의사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대표원장 김 정 경(안젤라)
반월당역 22번 출구 농협 3층
(주차 가능함)
예약전화 053)252-6875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울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결혼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미팅횟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당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상인점 홀플러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교 입구

스피치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Speech Kim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김민지(사바나)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출열/성장(식욕부진·수면장애)/아토피/아노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 사
동국대한의학과 외래교수 **김 성 철(비오)**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애니타워 4F

참소중한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전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구평성당 새 성전 봉헌식

일시: 10.26(일) 15:00

장소: 구평성당(구미)

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행사 | 모임

죽전성당 은혜의 밤

일시: 10.27(월) 19:00

강사: 박효철(베네딕도 신부)

일정: 찬미, 초청 강의와 미사, 치유 안수

문의: 561-8847 / (010)9699-4718

하늘집 축복식(개인피정의 공간)

일시: 11.1(토) 11:00

주소: 경북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1359

문의: 동천성당, 326-5004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10.20(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좌반 모집: 9.15(월)~10.31(금)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한티순교성지 사진 공모전

제출: 2015.1.15(목)까지

주제: 한티순교성지 사계

규격: 11x14 흑백 및 칼라(합성불가)

교육 | 모집

월간 <참소중환당신> 사은 특강

일시: 10.23(목) 14:00

장소: 신평성당(구미)

강사: 차동엽 신부, 대상: 모든 신자

문의: (031)985-2808, 2835

뿌에리 간또레스 제20기 모집

대상: 초등학교 3학년~6학년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안교육산자연중학교 전입학 설명회

일시: 10.25(토) 14:00

장소: 본교 도서관

대상: 예비 중학생 및 중 1, 2학년

원서접수 및 면접: 11.17(월)~30(일)

문의: (054)338-0530

관덕정 주관 11월 성지순례

일자: 11.16(일), 대전교구 신리성지

신청: 10.22(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빛 떼제 기도 연주 봉사자 모집

분야: 노래, 클래식 악기

활동: 각종 피정 및 연주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010)9056-9005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통기타, 플룻, 우쿨렐레(성인, 어린이)

바이올린, 오카리나, 초크아트, POP,

토피어링, 백세건강 / 문의: 476-6211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초·중·고: 1.2~1.30(4주) 선착순

대학: 1차 1.3 / 2차 2.28(8주 이상)

특징: 여성가족부 허가 프로그램

수녀님 인솔, 해외봉사활동

문의: 656-6655 / 593-1273(대학생)

채용 | 안내

월간 <빛> 사무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마감: 10.21(화)

문의: 총무부, 250-3158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면접 후 채용)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

이용방법: 전화, 내방, 사이버 상담

상담전화: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 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도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전영순(아네스), 차한혁(이나시오)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분도의 한방을 가리며
내일을 만드는
기적의 에너지가 됩니다!
(주)분도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
분도치유/유소스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53)623-4600, 656-2500
대표 김 현 철 (베네딕도)

일본 성지순례
이라도, 나가사키 (4월) / 오이타, 유우인 (4월)
※ 출발일 - 11월 12일, 26일
- 12월 03일, 17일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 힐 레(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서울 사무실 총대 앞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와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덕기(바오로) 011-514-3855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성모발현지 외 다수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